

[순모임 교재]

GQS
11월 둘째주

의인도 고통당한다

요기 1:1-12

-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 11월의 주제는 '하나님께 고통을 묻다'입니다(1주 '의인도 고통당한다', 2주 '의인이 고통을 호소할 때', 3주 '하나님이 고통에 침묵하실 때', 4주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구원자'). 하나님은 의로운 성도에게도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만 깨달는 인생이 있고, 고통 속에서만 보이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의미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1. 우스 사람 욱을 소개합니다(1-5절).

- 1) 욱은 어떤 사람입니까(1절)?
- 2) 욱의 자녀는 몇 명이고, 그의 재산은 어느 정도입니까(2, 3절)?
- 3) 욱이 자녀를 위하여 한 일은 무엇입니까(5절)?

나눔1 욱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거라 생각하는지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나눔2 욱은 자녀들의 신앙을 살피되, 혹시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는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을 죄로부터 지키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2.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욱을 고소할 구실을 만듭니다(6-12절).

- 1) 하나님은 사탄에게 욱을 어떤 말로 자랑하십니까(8절)?
- 2) 사탄은 욱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며 하나님을 자극하십니까(11절)?
- 3) 사탄의 도발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12절)?

나눔3 욱의 고통은 그가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고통에 관하여 어떤 통찰을 주는지 나눠봅시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공동체: 죄를 멀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지키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